

The LEET BIBLE

2027

변호사 사례형문제 집필

오르지 않는 LEET 점수를 구원해 줄
단 하나의 교과서, 리트바이블



PRACTICE BOOK #4

특수유형 집중훈련 (1)강화/약화



The
LEET
BIBLE™

PRACTICE BOOK

제목	The LEET BIBLE 2027 Practice Book #4-1 특수유형 집중분석 (1)강화/약화
발행일	2025년 9월 19일 초판 1쇄
Version	v2027-1.00
지은이	사례형문제
편집인	정태환
펴낸이	정태환
펴낸곳	어반컬처랩 주식회사
주소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동백중앙로 191 8층 A8924
홈페이지	https://leetbible.com
전화	070-4138-2100
정가	49,800원
ISBN	979-11-994933-4-6(15360)

잘못된 책은 구입하신 곳에서 교환해 드립니다.

이 자료는 대한민국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작성된 모든 내용의 권리는 작성자에게 있으며, 작성자의 동의 없는 사용이 금지됩니다.

본 자료의 일부 혹은 전체 내용을 무단으로 복제/배포하거나 2차적 저작물로 재편집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무단 복제/배포/수정은 엄금하며, 본 교재의 저자가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입니다.

※ 저작권법 제30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 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지 아니하다.

※ 저작권법 제136조(벌칙)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지적재산권 및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들어가며

The LEET BIBLE

Practice Book 2027 서문

The LEET BIBLE이 LEET를 바라보는 방향성

출제자의 인적 자원 POOL이 비슷하고 평가하려는 능력과 방향에서 겹치는 부분이 있더라도, The LEET BIBLE은 **법학적성시험(LEET)**이 수능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패러다임을 가진 시험**이라는 **전제하에 접근**합니다. 이는 두 시험이 실전에서 요구하는 태도와 학습 전략이 다르게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많은 수험생이 수능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음에도 LEET에서는 난항을 겪습니다. 만약 두 시험의 고득점 전략이 동일했다면, LEET 준비 과정에서 큰 어려움을 느끼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수험생이 LEET에서 좌절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이를 극복하기 위해 어떤 방향으로 학습해야 하는지를 탐구하고 해법을 제시하는 것이 책의 핵심 목표입니다.

수능이 정해진 학습 범위 안에서 성실한 노력으로 성공할 수 있는 시험이라면, LEET는 **법조인으로서 요구되는 자질과 잠재력을 평가하는 적성 중심의 시험**입니다. 따라서 LEET가 요구하는 사고 능력을 이해하고, 이를 실전에서 활용할 수 있는 훈련을 해야 우수한 성적을 얻을 수 있으므로 기존의 대다수의 시험과 준비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나 많은 수험생이 LEET를 자신이 이미 잘 알고 있는 시험이라고 간주하고 과거 성공했던 학습 방식을 그대로 적용하려는 경향, 즉 휴리스틱(Heuristic)에 빠집니다. LEET라는 시험의 본질을 정확히 이해하고, 그에 맞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성공의 시작점이 됩니다. 단순히 문제를 반복해서 푸는 것만으로는 원하는 성과를 얻기 어렵고, LEET가 요구하는 사고 능력을 개발하는 데 적합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수험생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은 개념이나 원리의 이해가 아니라, “이해는 했지만 왜 적용이 어려운가? 내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학습해야 하는가?”입니다. 이는 단순한 의문이 아니라, **LEET 학습의 본질적인 과제**입니다. 그러나 현재 LEET 교육 시장에서는 상당한 비용과 시간을 투자하고도 명확한 훈련 방법과 방향성을 제시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The LEET BIBLE은 바로 이 지점에 주목했습니다. 단순한 개념 이해나 문제 풀이 요령을 넘어서, “어떻게 사고 과정을 전환할 것인가? 이렇게 전환된 사고를 실전에서 어떻게 구현할 수 있을 것

인가? 그리고 이러한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 어떤 체계적인 훈련이 필요한가?”와 같은 **실천적 과제들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해법을 제시하는 것이 The LEET BIBLE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단순한 문제 풀이 전략을 넘어, **수험생이 실제로 사고방식을 변화시키고 이를 실전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이 책의 취지입니다.

Practice Book 교재는 어떤 교재인가

지난 Principle (상), (하)권을 거쳐오시면서 배우신 The LEET BIBLE의 LEET 공략법은 아직 여러분 것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LEET는 철저히 실전 중심의 시험이기 때문에, 아무리 여러분들이 LEET에 대한 접근방법을 알고 있더라도 **실제로 그것을 문제풀이에 적용시키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이고, 아는 것을 하는 것으로 만드는 과정이 바로 **‘반복훈련’**입니다.

The LEET BIBLE의 Practice Book은 이런 지점을 겨냥해서 만든 커리큘럼입니다. 2027학년도 버전에서 더 커리큘럼이 풍부해진 Practice Book은, 대략적으로 8년 전에서 3년 전의 기출문제, 쉽게 말씀드리면 2027학년도인 본 교재 기준 **2017학년도부터 2023학년도의 7개년의 기출문제 대부분을 유형별로 쪼개서 집중적으로 문제풀이에 적용시켜보는 교재**입니다. 이로써 Principle (상), (하) + Practice Book 6종의 교재를 통해서 **여러분들께서는 2017~2023학년도의 거의 모든 기출문제를 The LEET BIBLE 방식으로 풀이해 보실 수 있게** 됩니다. 각 세부 교재별로 **특정 유형의 문제를 어떻게 공략하는지에 대한 방법과, 필수 사전 지식을 배울 수 있는 점**은 **덤**입니다.

이 과정은 철저히 ‘훈련’을 위한 과정이고, 비슷한 방식으로 계속해서 비슷한 문제를 집중적으로 풀게 됩니다. 지루할 수도 있고, 고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배우셨던 내용을 기출문제에 실제로 적용시켜 보고, 그 즉시 The LEET BIBLE에서는 어떤 식으로 문제를 접근하는지를 확인한 뒤 **여러분의 사고과정과 비교해보시는 과정**을 통해, 여러분 스스로가 어떤 지점을 어려워하고, 어떤 실수를 반복하는지를 찾아내 그것을 집중적으로 개선하는 과정을 통해 LEET의 기본 실력을 다질 수 있게 됩니다.

본 Practice Book을 통해, 여러분께서 그동안 배워오셨던 LEET 접근방법을 몸에 착 달라붙게 만들 수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자 변호사 ‘사례형문제’

The LEET BIBLE을 올바르게 활용하는 방법

The LEET BIBLE에서 LEET를 다루는 방식은 철저히 “실전 중심적”입니다. 후술하겠지만, LEET라는 시험이 수험자의 지식수준을 측정하는 시험이 아니니만큼, 본 교재는 원리서이지만 흔히 과목 교과서에서 볼 법한 포맷과는 매우 다를 수 있습니다.

1 LEET Tips

LEET TIPS

The LEET BIBLE을 통해 어떻게 LEET 고득점을 달성할 수 있는지 가장 잘 알 수 있는 섹션으로, 본문 중간중간에서 각 파트의 핵심적인 내용을 별도로 정리해서 제시해 드리는 파트입니다. 암기 일변도의 개념 정리에 머물지 않고 LEET 시험을 구성하는 각 문제 유형별 실전 대응법 또는 문제 풀이 방법론을 제시하는 의견서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복습하실 때나 특정 유형이 잘 풀리지 않을 때, 교재를 빠르게 넘기시면서 Tips 부분만 잘 살펴보셔도 문제 대응을 위한 길잡이로서 손색이 없을 것입니다.

2 Review Note

Review Note

✓ 풀어볼 문제

2014학년도 추리논증 2번

The LEET BIBLE은 단순히 문제를 풀이하거나 사후적으로 해설하는 것이 아니라, 실전에서 문제를 어떻게 접근해 정답을 가려낼 것인지에 집중합니다. 이를 위해 본서는 Review Note라는 양식을 활용하여, 수험생 스스로 문제 접근 방식을 점검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습니다. (Review Note 양식은 리트바이블 홈페이지 '학습자료실'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본 교재에 선별된 모든 문제에는 Review Note가 첨부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실제 LEET를 준

비한 선배 수험생들이 직접 작성한 것입니다. 이미 완성된 LEET 고수가 적은 해설이 아니라, 여러분과 같은 입장에서 학습했던 선배들의 기록이기 때문에 더욱 현실적이고 공감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험생 여러분은 Review Note를 통해 대부분의 수험생이 공통적으로 고민하는 부분을 확인하고, 자신도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되돌아볼 수 있습니다. 나아가 “다들 비슷한 고민을 하는구나”, “이 부분이 공통적으로 어렵구나”를 넘어, “나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남들보다 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까?”라는 사고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The LEET BIBLE에서 제시하는 정석적인 방법으로 훈련하고 싶다면, 문제를 풀 때마다 직접 Review Note를 작성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Practice Book의 단계에서는 정답 그 자체보다 정답을 도출하기까지의 사고 과정과 대응 방식이 본서에서 소개하는 실전적 LEET 풀이법을 따랐는지를 되짚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자신의 Review Note를 교재의 예시와 비교하며 검토하면, 한 문제를 더욱 깊이 이해하고 실력을 체계적으로 쌓아갈 수 있습니다.

CONTENTS

CHAPTER

01

강화·약화 문제 접근 설명서 8

1. Practice Book 집필 의도 10
2. 강화·약화 문제 유형의 접근법 11
3. 실험형 문제와 조건문 문제 19
4. 형식논리학의 강화·약화 문제에 따른 실천적 이해 20
5.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22

CHAPTER

02

강화·약화 기본형 24

1. 강화·약화 기본형 개요 26
2. 강화·약화 기본형 분석 및 풀이 28

CHAPTER

03

강화·약화 심화형(실험/함수형) 236

1. 강화·약화 심화형 개요 238
2. 강화·약화 심화형 분석 및 풀이 240

정답지 398

CHAPTER

01

강화·약화 문제 접근 설명서



The
LEET
BIBLE™

“

LEET 단골 문제인 강화·약화 유형은
길어도 짧고 쉬워보이지만
개념과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어
훈련 없이 풀기 어렵습니다.

이런 강화·약화 문제를
자신있게 풀 수 있도록
본 교재를 통해 충분히 연습해 봅시다.

제 1 장

강화·약화 문제 접근설명서

The LEET BIBLE

1 Practice Book #4-1 강화약화의 집필 의도

LEET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LEET적 사고의 틀"을 확립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작업입니다. 정말 간단하게 표현해 보자면 수능 언어처럼 글 자체를 독해해서 이해하려는 접근방식이 아닌, 문제풀이적 관점에서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문제의 요구사항을 대응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 과정을 쉽게 만들기 위해 차원을 구획하고, 밑줄을 통해 정보를 줌의 방법을 터득하고, 첫독해와 재독해를 나누어 정보 습득과 정보 처리를 구분했었습니다.

Practice Book은 Principle 시리즈에서 학습한 내용에서 더 나아가 LEET에서 자주 출제되는 개별 영역에 대한 집중적인 학습을 통해, 해당 영역에서의 득점력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강화·약화 영역은 추리영역에서 매해 출제되는 반복되는 문제 유형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수험생들이 어려워하시는 영역이므로, 특수 유형으로 지정해 해당 유형을 집중적으로 훈련하실 수 있게끔 본 교재를 제작했습니다.

강화·약화 문제는 이 문제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어느 정도 정형화된 유형이기도 하므로 이 접근방식에 익숙해지면 해당 문제를 자신 있게 풀고 넘어갈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본 영역에서 요구하는 사고 능력은 언어이해에서의 비판 문제 또는 보기형 문제에서의 접근방식과도 본질적으로

CHAPTER

02

강화·약화 기본형



The
LEET
BIBLE™

“

강화·약화 기본형은
여러 입장들을 속에서
입장 간 관계를
능동적으로 파악하면
쉽게 공략할 수 있습니다.

제 2 장

강화·약화 기본형

The LEET BIBLE

일반적으로 강화·약화 기본형 문제에서는 다양한 입장들이 제시됩니다. 쉬운 문제의 경우 두 가지 견해가 등장하는 경우가 많지만, 최근에는 세 가지 견해가 제시되는 경우가 더 빈번해졌습니다. 여기서 "기본형"이라는 명칭이 붙었다고 해서 해당 문제 유형 자체가 쉽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오히려 강화·약화 문제의 핵심적인 접근 방식을 익히고 이를 전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본형'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이번 장을 통해 여러분이 직접 강화·약화 기본형 문제들의 형식적·구조적 특성을 탐구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는 강화·약화 문제에 대한 숙련도를 기르는 것은 물론, 언어이해 영역의 이항관계적 제시문이 가질 수밖에 없는 필연적 구조를 이해하고 활용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 강화·약화 기본형의 형식과 구조를 살펴보는 과정은 근본적으로 LEET 전반의 수험 지문의 기본 구조를 파악하고 이를 문제 풀이에 활용하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과정이 어떤 효과를 의도하는지 먼저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각 입장에서 제시된 일반 진술을 선지 속의 다른 단어로 패러프레이징 되어 표현된 구체적 사례를 해당하는 차원에 배치함으로써 '수동적으로' 정보가 받아들여지고 배치되는" 경험을 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이번 장에서는 이러한 목표 의식을 가지고 "강화·약화 기본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강화·약화에서 제시된 입장 그 자체만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배치되는 차원을 생각하

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제가 거듭 강조하는 것처럼 A 차원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A 차원 역시 의식하는 사고방식을 길러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때 여러분은 지문에서 문단 간 관계와 문단의 역할을 명시적으로 드러내는 문장들을 잘 활용할 준비를 해 두어야 합니다.

또한, 대응형 사고방식에서 핵심적인 포인트로, 일상어로 표현된 변수들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기본적으로 다른 유형의 문제에 접근하는 방식과 다르지 않지만, 강화·약화 문제에서 특히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표현들이 주장의 전제 영역에서 대응점으로 기능하면서, 그 자체로 강화 또는 약화의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강화·약화의 방법을 자의적으로 한정 짓지 않아야 한다는 사고방식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27. <주장>에 대한 평가로 옳은 것은?

<주장>

- A : 지역 간 경제적 격차는 시장 논리에 따라 자연스럽게 완화될 수 있다. 노동이나 자본은 수익률이 높은 곳으로 움직이는데 그 결과 노동이나 자본의 경쟁이 심화되어 수익률이 하락하게 된다. 이러한 경쟁을 방해하는 국가의 개입은 오히려 지역 간 균등화를 방해한다.
- B : 지역 간 경제적 격차는 심화되는 경향이 있다. 경제 발전의 핵심은 혁신이다. 혁신은 다양한 인재가 모여 일어난다. 인재는 물리적, 문화적 인프라가 있는 곳에 몰린다. 따라서 자본과 노동은 발전된 곳을 쉽게 떠나려고 하지 않는다. 지역의 인프라를 무시하고 자본과 노동을 이동시키려는 국가 정책은 대부분 실패한다.
- C : 지역 간 경제적 격차는 국가의 경제 발전 전략으로 생겨난다. 국가가 정치적 이해관계, 산업 정책 등을 이유로 특정한 발전 전략을 수행하면, 어떤 지역은 특권화되어 발전하나 다른 지역은 소외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생긴 지역 간 격차는 국가가 개입함으로써 해소된다.

<자료>

- ㄱ. 세계적으로 자본과 노동은 주로 북미, 서유럽, 동북아시아에서 움직인다. 남미와 아프리카는 배제되어 있다. 국내적으로도 자본과 노동은 산업화된 지역에 집중된다. 개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으로 이러한 불균등이 시정된 경우는 거의 없다.
- ㄴ. 예술 대학이 근처에 있고 임대료가 저렴하여 창의적인 인재와 산업이 모인 결과 X지역은 소비문화가 번성하고 사람과 돈이 몰려들었다. 그러나 X지역의 성장을 이끌었던 인재와 산업은 높아진 부동산 가격을 견디지 못하고 다른 곳으로 밀려났다. 국가는 그 지역의 쇠퇴를 지연할 수 있었지만 막을 수는 없었다.
- ㄷ. 1980년대 Y국 정부는 금융과 서비스 산업 성장을 추진하는 동시에 노동조합의 약화를 꾀했다. 그 결과로 노동조합 근거지의 경제는 상대적으로 침체되고 실업이 크게 증가하였다. 1990년대 후반부터 Y국 정부는 지역 정책을 통해 외국 자본을 유치하여 쇠퇴된 지역의 경제를 회복하려 노력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 ① ㄱ은 A를 강화한다.
- ② ㄱ은 B를 약화하고 C를 강화한다.
- ③ ㄴ은 B를 강화한다.
- ④ ㄴ은 A와 C를 강화한다.
- ⑤ ㄷ은 C를 약화한다.

① ㄱ은 A를 강화한다.

A : 지역 간 경제적 격차는 시장 논리에 따라 자연히 완화된 수 있다. 노동이나 자본은 수익률이 높은 곳으로 움직이는데 그 결과 노동이나 자본의 경쟁이 심화되어 수익률이 하락하게 된다. 이러한 경쟁을 방해하는 국가의 개입은 오히려 지역 간 균등화를 방해한다.

결국 A의 주장은 간단합니다. 지역 간 경제적 격차는 자연스럽게 해결되며, 국가의 개입은 오히려 이를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수험생들은 A의 주장 가운데 마지막 문장인 "국가 개입은 오히려 지역 간 균등화를 방해한다"라는 부분에만 주목했습니다. 그러나 A의 주장은 하나가 아니라 두 개로 접근해야 합니다.

첫째, 지역 간 경제적 격차는 자연스럽게 완화된다는 것입니다.

둘째, 국가의 개입은 이러한 자연스러운 완화를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A의 주장을 강화하거나 약화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 경우의 수가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주장과 관련이 있는 경우, 두 번째 주장과 관련이 있는 경우, 또는 두 주장 모두와 관련이 있는 경우입니다.

ㄱ. 세계적으로 자본과 노동은 주로 북미, 서유럽, 동북아시아에서 움직인다. 남미와 아프리카는 배제되어 있다. 국내적으로도 자본과 노동은 산업화된 지역에 집중된다. 개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으로 이러한 불균등이 시정된 경우는 거의 없다.

ㄱ 선지에서는 국제적으로 어떤 지역이 사례로 제시되는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해당 사례들은 지역 "간" 격차를 보여주지만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앞 두 문장에서 남미와 아프리카가 배제되어 있고, 북미, 서유럽, 동북아시아 등의 사례가 제시된 것은 지역 간 격차를 보여주는 것일 뿐, 그 개별적인 지역의 특수성은 우리가 고려할 대상이 아닙니다.

지역 간 격차	
집중된 지역	~집중된 지역
북미, 서유럽, 동북아시아	남미, 아프리카

이 사실을 A의 주장과 연결해 보겠습니다. 수험생들은 대응 부분을 찾는 과정에서 주로 마지막 문장에만 주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의적으로 개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으로 이러한

불균등이 시정된 경우는 거의 없다"라는 진술이 답의 근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앞부분도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세계적으로 자본과 노동은 주로 북미, 서유럽, 동북아시아에서 움직인다. 남미와 아프리카는 배제되어 있다. 국내적으로도 자본과 노동은 산업화된 지역에 집중된다.

해당 진술이 의미하는 바는 지역 간 격차가 유지되고, 배제되며,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를 A의 주장과 연결해 보면, 지역 간 경제적 격차는 자연스럽게 완화되거나 이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사실의 영역에서 A의 주장과 대응할 부분이 생겼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강화와 약화 문제를 풀 때는 주장뿐만 아니라 사실의 일치 여부도 주요 출제 포인트라는 점을 의식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수험생들은 주장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지만, 사실관계의 일치 여부 또한 강화나 약화의 근거가 될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경우, ㄱ 선지에 제시된 사실은 A의 첫 번째 주장인 "지역 간 경제적 격차는 자연스럽게 완화된다"와 상충되므로, A의 주장을 약화시키는 근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번은 틀린 선지였습니다.

② ㄱ은 B를 약화하고 / C를 강화한다.

다시 한번 ㄱ 선지의 대응 지점을 살펴보겠습니다.

ㄱ. 세계적으로 자본과 노동은 주로 북미, 서유럽, 동북아시아에서 움직인다. 남미와 아프리카는 배제되어 있다. 국내적으로도 자본과 노동은 산업화된 지역에 집중된다[대응 지점]. 개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으로 / 이러한 불균등이 시정된 경우는 거의 없다.

B : 지역 간 경제적 격차는 심화되는 경향이 있다. 경제 발전의 핵심은 혁신이다. 혁신은 다양한 인재가 모여 일어난다[대응 지점]. 인재는 물리적, 문화적 인프라가 있는 곳에 몰린다. 따라서 자본과 노동은 발전된 곳을 쉽게 떠나려고 하지 않는다. 지역의 인프라를 무시하고 자본과 노동을 이동시키려는 국가 정책은 대부분 실패한다.

앞서 A에서 활용했던 논리를 그대로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점은 "사실의 영역"에서 대응 지점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수험생께서 A와 B의 관계에서 오직 B의 마지막 부분, 즉 “국가 정책은 대부분 실패한다”라는 주장만을 대응 지점으로 한정 짓고 평가하는 경향이 있으나, B 전체의 논지 흐름을 고려해야 합니다.

B는 지역 간 경제 격차가 자연스럽게 심화된다고 보며, 자본과 노동이 발전된 지역을 떠나지 않는다고 진술합니다. 이때 “인재와 자본은 발전된 지역에 집중되고, 국가 개입은 효과가 없다”는 설명은 지역 간 불균형이 구조적으로 고착된다는 점을 강조하는 주장입니다.

ㄱ에서 언급된 “자본과 노동이 산업화된 지역에 집중된다”라는 내용은, 곧 B에서 말하는 “경제 발전이 특정 지역에 집중된다”는 설명과 사실의 층위에서 일치합니다. 또한, “지자체의 노력으로 불균등이 시정된 경우는 거의 없다”라는 표현 역시 B의 ‘국가 개입 실패’라는 진술과 동일한 방향성을 지닙니다.

따라서 ㄱ은 B의 주장과 논리 구조를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뒷받침하는 자료에 해당합니다. ㄱ은 B와 “사실의 영역”에서 상반된 진술을 지속하는 것이 아니라, 일치하는 진술을 구성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셔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2번 선지는 틀린 선지였습니다.



강화·약화 부분에서 주장만이 출제 포인트가 아니다

수험생들은 **강화·약화**에서 자의적으로 출제 포인트를 한정지을 때가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현상은 유독 강화·약화 유형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이유는, 주장에만 주목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강화·약화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방식 외에 다른 방법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즉, 사실의 일치 영역에서도 출제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B의 문장에서도, 국가 정책은 실패한다는 부분 외에도, 자본과 노동은 쉽게 떠나려고 하지 않는다고 사실을 언급했는데, 만약 반대되는 영역의 사실이 진짜 참이라면, B의 입장을 약화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의식적으로 자신이 생각하는 부분에서만 문제가 될 것이라 생각하고 한정짓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응 지점이 보이지 않을 때는 다른 영역에 가서 찾아봐야 합니다. 이는 밑줄이라는 무기를 활용할 때 내가 놓쳤던 변수를 보기 위한 목적이 존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재독해 영역에서 한 문단 자체를 다시 읽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드렸던 이유와도 같습니다.

C: 지역 간 **경제적 격차**는 / 국가의 **경제 발전 전략**으로 생겨난다. 국가가 정치적 이해관

계, 산업 정책 등을 이유로 특정한 발전 전략을 수행하면, 어떤 지역은 특권화되어 발전하나 / 다른 지역은 소외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생긴 지역 간 격차는 국가가 개입함으로써 해소된다[대응 지점].

C까지 봐보죠. C는 지역 간 경제적 격차는 오히려 국가의 경제 발전 전략으로 인해서 생겨난다는 사실을 제시합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지역 간 경제적 격차의 경우, 국가가 개입해서 해소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ㄱ. 세계적으로 자본과 노동은 주로 북미, 서유럽, 동북아시아에서 움직인다. 남미와 아프리카는 배제되어 있다. 국내적으로도 자본과 노동은 산업화된 지역에 집중된다. 개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으로 이러한 불균등이 시정된 경우는 거의 없다[대응 지점].

다시 ㄱ 선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C와 관련해서는 마지막 문장에서 쉽게 대응 지점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국가의 개입을 통한 해소 부분에서 서로 다른 차원이라는 것을 쉽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③ ㄴ은 B를 강화한다.

ㄴ. 예술 대학이 근처에 있고 임대료가 저렴하여 창의적인 인재와 산업이 모인 결과 X지역은 소비문화가 번성하고 사람과 돈이 몰려들었다. 그러나 X지역의 성장을 이끌었던 인재와 산업은 높아진 부동산 가격을 견디지 못하고 다른 곳으로 밀려났다[대응 지점]. 국가는 그 지역의 쇠퇴를 지연할 수 있었지만 막을 수는 없었다.

이제 ㄴ과 B를 대응하려고 했을 때 결국엔 강화·약화 문제에서 주장 부분뿐만 아니라 사실 영역에서 추출할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ㄴ에서는 인재와 산업이 다른 곳으로 밀려났다는 것을, B에서는 자본과 노동이 몰린다고 한 부분과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영역에서 반대 사실이 쓰여있으므로 강화할 수 없었습니다.

B : (중략) 따라서 자본과 노동은 발전된 곳을 쉽게 떠나려고 하지 않는다[대응 지점]. 지역의 인프라를 무시하고 자본과 노동을 이동시키려는 국가 정책은 대부분 실패한다.

다시 한번 사실 일치 영역에서 대응 포인트가 설정된 문제였습니다. 그럼에도 이 부분을 발견하지 못한 수험생들이 다수 있었습니다. 이 점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번은 틀린 선지였습니다.

④ ㄴ은 A와 C를 강화한다.

4번도 함께 보겠습니다.

ㄴ. 예술 대학이 근처에 있고 임대료가 저렴하여 창의적인 인재와 산업이 모인 결과 X지역은 소비문화가 변성하고 사람과 돈이 몰려들었다. 그러나 X지역의 성장을 이끌었던 인재와 산업은 높아진 부동산 가격을 견디지 못하고 다른 곳으로 밀려났다[대응 지점]. 국가는 그 지역의 쇠퇴를 지연할 수 있었지만 막을 수는 없었다.

A : 지역 간 경제적 격차는 시장 논리에 따라 자연히 완화될 수 있다. 노동이나 자본은 수익률이 높은 곳으로 움직이는데 그 결과 노동이나 자본의 경쟁이 심화되어 수익률이 하락하게 된다. 이러한 경쟁을 방해하는 국가의 개입은 오히려 지역 간 균등화를 방해한다[대응 지점].

ㄴ과 A를 연결해 보면, 지역 간 경제적 격차가 시장 논리에 따라 해소된다는 부분에서 같은 입장이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몰려들었으나, 알아서 높아진 가격을 견디지 못하고 밀려났기 때문입니다.

C : 지역 간 경제적 격차는 / 국가의 경제 발전 전략으로 생겨난다. 국가가 정치적 이해관계, 산업 정책 등을 이유로 특정한 발전 전략을 수행하면, 어떤 지역은 특권화되어 발전하나 / 다른 지역은 소외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생긴 지역 간 격차는 국가가 개입함으로써 해소된다[대응 지점].

그런데, C의 경우 명확하게 대응 지점이 반대 차원인 것이 보입니다. C는 국가가 개입함으로써 해소된다고 하나, ㄴ은 국가의 정책이 막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틀린 선지입니다.

⑤ ㄷ은 C를 약화한다.

ㄷ. 1980년대 Y국 정부는 금융과 서비스 산업 성장을 추진하는 동시에 노동조합의 약화를 꾀했다. 그 결과로 노동조합 근거지의 경제는 상대적으로 침체되고 실업이 크게 증가하였다. 1990년대 후반부터 Y국 정부는 지역 정책을 통해 외국 자본을 유치하여 쇠퇴된 지역의 경제를 회복하려 노력했지만 / 성공하지 못했다[대응 지점].

ㄷ 선지도 국가가 뭔가를 하려고 했지만, 결국에는 지역 경제를 회복시키지 못했다는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례는 C가 했던 말을 그대로 재현하는 것일까요? 오히려, 대응 지점을 정확히 살

펴보면 그 반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선, 노동조합 근거지의 경제가 상대적으로 침체되고 실업이 크게 증가하였다는 진술은, 지역 간 격차가 형성된 과정을 보여주는 사실관계입니다. 이처럼 격차가 생긴 이후, Y국 정부는 외국 자본을 유치하여 지역 경제를 회복하려는 정책을 추진하였는데, 결과적으로 그 정책은 실패합니다.

여기서 C의 주장을 다시 보겠습니다.

C : 지역 간 경제적 격차는 / 국가의 경제 발전 전략으로 생겨난다. 국가가 정치적 이해관계, 산업 정책 등을 이유로 특정한 발전 전략을 수행하면, 어떤 지역은 특권화되어 발전하나 / 다른 지역은 소외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생긴 지역 간 격차는 국가가 개입함으로써 해소된다[대응 지점].

즉, C는 국가가 격차를 만들기도 하지만, 국가의 개입이 격차 해소의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말합니다. 그런데 ㄷ에서는 국가가 개입했음에도 해소에 실패했다고 나오므로, 이는 C의 핵심 주장인 '국가 개입 ⇒ 격차 해소'라는 연결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사례였습니다.

따라서 이 자료는 C의 주장과 반대 방향의 진술로, C를 약화하는 역할을 한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대응할 부분이 차례차례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이 점에서 5번은 맞는 선지였고, 정답이었습니다.

Review Note

✓풀어볼 문제

2020학년도 추리논증 27번

POINT

▶ 놓친 부분, 문제의 변하지 않는 정신, 내가 깨달은 것, 선생님이 말해준 포인트

- A견해와 B견해가 어떤 차원인지, 각각 서로 다른 차원으로 생각함. 내 생각과 선생님의 생각 차이를 파악
- 정확한 견해 구획이 중요함.
- 단어의 변주를 볼 줄 알아야 함.

WRONG

▶ 처음 풀이의 사고과정이 어디서 왜 잘못됐는지 깨닫기, 교정해야 하는 구체적 부분

A : 내 생각 = 국가 개입 - 경쟁 방해 ⇒ 국가차원으로 생각함.

선생님 생각 = 경쟁을 방해하는 차원 - 거시차원으로 보심.

B : 내 생각 = 국가 정책에 있어서 개입 - 실패로 생각

⇒ A나B 모두 국가가 개입하는 관계를 가진다고 생각함.

⇒ A는 국가 개입이 방해로 봄.

⇒ B는 국가 개입을 제도로 보고 실패한다고 봄.

선생님 생각 = 방해와 실패로 구획하심. - A/B = 방해/실패

비슷하지만 다른 것으로 봄.

C : 내 생각 = 국가 개입차원이 해소되는 것으로 봄.

선생님 생각 = A와 B/C는 다른 차원의 견해라고 생각하심.

⇒ A,B 는 국가 개입 - 거부 단, 표현이 다름 방해/실패 / C는 국가 개입 - 허용

선생님과 내 생각의 차이는 AB/C를 생각하지 못했다는 것.

미시적으로 어떤 것인지는 아는데, 거시적 차원으로 어디에 속하는지 크게 파악하지 못함.

견해가 각각 다른 입장을 가질 것으로 생각한 고정관념이 존재하는 것 같음.

이러한 견해문제가 나올 때마다 각 다른 견해라고 생각함.

CORRECT

▶ 올바른 풀이과정

세계적으로 자본과 노동은 주로 북미, 서유럽, 동북아시아에서 움직인다. 남미와 아프리카는 배제되어 있다.
국내적으로도 자본과 노동은 산업화된 지역에 집중된다.
개별국가나 지방 자치단체의 노력으로 이러한 불균등이 시정된 경우는 거의 없다.

내 생각 = A의 경우 - 해당하지 않는 것 같았음. - 시정된 경우는 거의 없다 라는 표현에 대해서, 방해라는 단어의 변주로 보이지는 않았음.

B의 경우 - B에 대해서는 강화하는 사례라고 생각했음.

⇒ 실패 - 시정된 경우는 거의 없다 - 국가의 정책은 성공한 적이 거의 없었다라고 느껴졌음..

선생님 생각 = 사례를 방해/실패/해소 각 각 대응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심.

- 각 견해로 재독해하여 각각 해당사항이 있는지 대응함.
똑같이 서울/시골로 비유하여 - 서울 성장/시골 쇠퇴로 대응함.

실패와 방해는 다른 것.

	C의 경우 - 약화...? 같은 생각 - 국가가 개입함으로써 해소되는 건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으로 시정된 경우가 거의 없다는 것은 해소되지 않았다고 생각함.	
L	예술 대학이 근처에 있고 임대료가 저렴하여 창의적인 인재와 산업이 모인 결과 X지역은 소비문화가 번성하고 사람과 돈이 몰려들었다. 그러나 X지역의 성장을 이끌었던 인재와 산업은 높아진 부동산 가격을 견디지 못하고 다른 곳으로 밀려났다. 국가는 그 지역의 쇠퇴를 지연할 수 있었지만, 막을수는 없었다. ⇒ A, B, C차원 각각 적용해보려고 했지만, 잘 안됨.	선생님 생각 = B견해에서 사실관계상 관계의 변화가 있는 경우 - B의 경우 - 몰림 - 떠나지 않음 / L의 경우 몰림 - 문제 - 떠남 ⇒ 사실관계의 변화 - A이면 ~B이다
C	1980년대 Y국 정부는 금융과 서비스 산업 성장을 추진하는 동시에 노동조합의 약화를 꾀했다. 그 결과로 노동조합 근거지의 경제는 상대적으로 침체되고 실업이 크게 증가하였다. 1990년대 후반부터 Y국 정부는 지역 정책을 통해 외국 자본을 유치하여 쇠퇴된 지역의 경제를 회복하려 노력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 내 생각 - 국가개입 - ~격차 해소 ⇒ A이면 ~B이다로 봄..	선생님 생각 = 노동조합의 근거지 경제는 상대적으로 침체 - 지역 간 격차 - 관계 설정 ⇒ 사실관계 ⇒ 실패

① 이러한 경쟁을 방해하는 국가의 개입은 지역 간 균등화를 방해한다. ≠ 개별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으로 이러한 불균등이 시정된 경우는 거의 없다.

⇒ 관련이 없기 때문에 강화하지 않는다.

② C 약화 X : 국가는 그 지역의 쇠퇴를 막을 수 없었다.

③ 강화 X : B는 자본과 노동이 떠나지 않는다고 하는데 L은 떠난다고 하니까

④ C 강화 X : C는 국가의 개입으로 해소된다고 하는데, L은 국가가 지역의 쇠퇴를 막을 수 없었다.

⑤ 약화 맞음 : C는 국가가 개입함으로써 해소된다고 하는데, C는 정부의 노력이 성공하지 못한 사례

변수

A : 시장논리 ⇒ 국가의 개입은 오히려 방해

B : 인프라 ⇒ 인프라 무시하면 국가 실패

C : 국가 개입 ⇒ 해소

⇒ 시키는 것만 그대로 하면 된다